



[낙농경영] 美, 사료가격 상승으로 생산량 감소

- 10월 생산량 전년대비 0.5% 감소



미국에서 낙농가들의 생산비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원유생산량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농무부(USDA)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월 원유생산량은 전년대비 0.5% 감소했고 두당 원유생산량은 3개월 연속 전년대비 줄어들며 20년 만에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글로벌 금융서비스 기업 스톤X 그룹(StoneX Group)의 낙농시장 분석가는 최근 가뭄에 이은 허리케인의 여파로 옥수수 등 주사료 가격이 치솟고 있고 수요 또한 크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인건비와 연료비 등 생산비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낙농가들이 사료가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료 급여량을 줄이고 있어 생산량이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또한, 사육 규모도 줄어드는 등 생산 규모는 줄어든 반면 우유 소비량은 늘어나고 있어 우유 및 유제품 소매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출처 : independent.ie, 11월 22일자 >

[업계동향] 다논, 식물성 대체음료 사업 투자 확대

- 유가공장 4곳, 식물성 대체음료 생산 공장으로 전환 계획



식물성 대체식품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프랑스 유업체 다논도 식물성 대체음료 생산 확대에 나섰다.

업체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7년간 식물성 대체식품 시장은 3배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프랑스의 경우 오는 2025년까지 50%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금년 오토밀크 생산 공장 증설을 위해 1,650만 유로(약 220억원)를 투자한데 이어 향후 총 6,700만 유로(약 895억원)를 투자해 프랑스에 위치한 유가공장 4곳을 식물성 대체음료 생산 공장으로 전환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를 통해 2024년까지 초고온살균(UHT) 식물성 음료 생산 능력을 25% 이상 늘리고 프랑스는 물론 유럽 시장에 새로운 제품을 선보이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출처 : dairyreporter.com, 11월 18일 >

위 내용은 세계낙농동향을 전파하기 위해 해외 낙농사이트에서 뉴스를 발췌해 번역한 것으로 낙농진흥회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위 내용을 기사 작성시 활용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